



“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태 2,9-11)

카를로 돌치(Carlo Dolci), <동방박사의 경배> 1649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
(◎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에페 3,2.3ㄴ.5-6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 2,1-12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87] 동방의 세 박사
 - 봉헌성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180] 주님의 작은 그릇
[344] 영성체
 - 파견성가: [100] 동방의 별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 ¹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²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³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 ⁴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⁵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 ⁶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
- ⁷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 ⁸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 ⁹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¹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 ¹¹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 ¹²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When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in the days of King Herod, behold, magi from the east arrived in Jerusalem, saying, “Where is the newborn king of the Jews? We saw his star at its rising]and have come to do him homage.” When King Herod heard this, he was greatly troubl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Assembling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of the people, He inquired of them where the Christ was to be born. They said to him, “In Bethlehem of Judea, for thus it has been written through the prophet: And you, Bethlehem,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since from you shall come a ruler, who is to shepherd my people Israel.” Then Herod called the magi secretly and ascertained from them the time of the star’s appearance. He sent them to Bethlehem and said, “Go and search diligently for the child. When you have found him, bring me word, that I too may go and do him homage.” After their audience with the king they set out. And behold, the star that they had seen at its rising preceded them, until it came and stoppe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They were overjoyed at seeing the star, and on entering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They prostrated themselves and did him homage.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s and offered him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And having been warned in a dream not to return to Herod, they departed for their country by another way.

묵상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빛이신 분의 탄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그토록 기다렸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고, 헤로데는 행여 자신의 권좌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모략을 쓰기까지 합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동방에서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온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이 유다 민족을 넘어 온 인류에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전쟁과 폭력, 살인과 죽음, 죄악과 고통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인류를 구원할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갈망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이 안내해 주는 표징을 따라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유대인들보다 먼저 들었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며 예물을 바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기쁨에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별이 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공평과 가난, 미움과 질투, 병과 죄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내 영혼을 비추고,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는 빛나는 별을 갈망하며 삽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구원의 빛을 체험한 제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 스스로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이 한 지체가 되어 구원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확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통과 제도의 틀에 갇혀 성령의 인도로 일깨워지고 지탱되는 ‘신앙 감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 속으로 렘브란트의 동방박사의 경배



〈동방박사의 경배〉, 렘브란트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는 1632년에 〈동방박사의 경배〉를 그리자유(Grisaille) 기법으로 그렸다. 그리자유는 낡은 흑백사진처럼 한 가지 색의 농담과 명암만으로 빛과 어둠의 대조를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한다. 렘브란트는 빛의 방향과 분량, 사람들의 몸짓과 시선을 통해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성경을 재해석했다.

이 그림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마테오복음 2장 1-12절과 2장 16-18절이 그 배경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두 임금을 대조적으로 부각시켰다. 한 사람은 세상의 임금이고, 다른 한 사람은 천상의 임금이다. 세상의 임금은 헤로데요, 천상의 임금은 예수님이다. 언뜻 보기에는 햇빛 가리개를 쓰고 왕홀을 들고 서있는 헤로데 임금이 크게 보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빛에 의해 아기 예수님께로 모아진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헤로데 곁에 있는 중년의 동방박사는 헤로데에게 분향을 하지만 유향연기는 헤로데를 비껴나간다. 그 연기를 시작으로 빛의 방향이 나선형으로 아기 예수님께로 향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아기 예수님께 머문다. 이것은 별을 보고 여행한 동방박사들의 종착지가 아기 예수님임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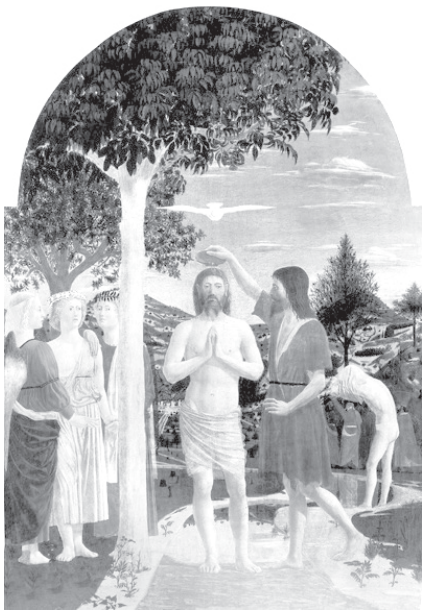
그러나 헤로데 임금은 마치 자기가 세상의 통치자인양 당당하게 서 있다. 그는 많은 대신들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고, 고압적인 자세로 손을 거만하게 펴고 있으며, 그의 시선은 공격적이고 탐욕스럽다. 그는 어떤 일을 즉각 수행할 태세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왕홀을 단도처럼 빼어들었다. 그는 자기의 왕권으로 군인을 시켜 베들레헴에 사는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암흑 속에 갇혀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빛을 향해 나아간다. 그 출발은 분향하는 중년의 동방박사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시선은 헤로데를 향하고 있지만 존경의 눈빛이 아니다. 그는 헤로데를 바라보면서도 이미 몸은 예수님께로 향했다. 예수님만이 향기로운 희생제물이기 때문이다. 빛의 가장자리 왼쪽에는 칼에 지탱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있다. 그의 바라봄이 그의 발밑에 있는 개와 연결된다는 게 놀랍다. 개는 주인에게만 충성한다. 그러니 그 사람도 순교를 하더라도 예수님께만 충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무릎 절을 하며 성작에 든 몰약을 예수님께 봉헌하는 젊은 동방박사가 있다. 그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주위를 살피다가 그의 시선이 성모님의 협력자인 요셉과 마주치게 된다. 노년의 동방박사를 따라나선 그는 요셉처럼 구원의 목격자가 되었고, 요셉이 마리아의 등 뒤에서 말없이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도왔듯이 젊은 동방박사도 노년의 동방박사 따라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노년의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고개를 조아린다. 그의 이마는 반쯤 벗겨졌고, 그의 수염과 머리카락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현인처럼 새하얗게 빛나고 있다. 그는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길은 아기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세상만을 바라보는 헤로데와는 다르게 그는 오로지 아기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그의 몸동작에는 공손함이 가득하고, 이러한 행동이 헤로데와 대조를 이룬다. 세상의 임금과 천상의 임금이 대조를 이루듯 어리석은 임금과 지혜로운 현자가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일까? 헤로데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지만 동방박사는 빛을 받으며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선물을 봉헌하며 엎드려 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동방박사를 힐끗 쳐다보며 살짝 놀라고 있다.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이다. “응, 이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께 겸손하게 경배하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피에로(Piero della Francesca), 1440-1445년

1월 8일 주님 세례 축일

성탄시기는 예수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로 막을 내린다. 이 날 전례의 중심은 역시 ‘세례’이다. 그리스도의 세례이지만 우리 신자들의 세례를 상기시킨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으며(성탄)
- 모든 민족들의 빛으로 계시되었으며(공현)
- 세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세례).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복음)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자 구세주로 내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을 선포(제2독서)하고 있다.

주님 세례 축일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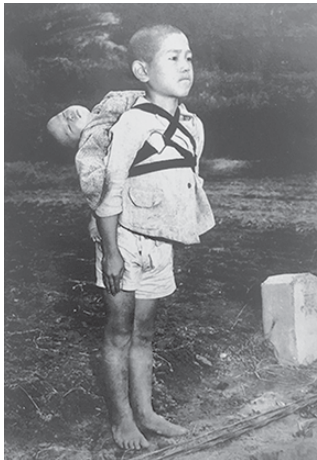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물에 빠져 본 사람은 물이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죽음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물에 잠겨 세속의 내가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성사입니다.

성당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놓인 성수대의 성수를 찍어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형식적인 표지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느님의 손길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회개의 표지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 요한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분께서도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이, 하느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임을 몸소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이 선포된 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종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성실하게 공정을 펴시며 민족들의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하여 파견되신 예수님의 고귀한 소명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세례명은 내가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견된 소명대로 살라는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게 해 주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교황이 만든 연하장 ‘전쟁의 결과’

“보십시오! 이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1945년 일본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뒤 촬영된 사진으로 특별한 연하장을 만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연하장 사진은 당시 미국 해병대원인 조지프 로조 오도넬이 찍은 것으로, 한 일본인 소년이 화장장에서 죽은 동생을 업고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교황은 연하장 뒷면에 서명과 함께 “이 어린 소년은 슬픔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있는데, 너무나 짝 깨물어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서명 위에는 ‘전쟁의 결과’라고 적었다. (가톨릭 신문)

2017년 성탄 꽃 봉헌자 명단

권영수 론지노, 이해란 수산나, 김 베레나, 이상길, 광 그레고리오 사비나, 김영애 골롬바, 어 도르데아, 박춘선, 권정미 안나, 은기권, 박용제, 조동훈, 곽종무 토마스 아퀴나스, 정우진 미카엘, 정구일 마가렛, 양 수산나, 하흥용 요셉, 홍 세실리아, 최정선 엘리자벳, 이근애 마리아, 한귀병 토마스, 정우성 프란치스코, 이명자 벨라지아, 유 벨라벳다 정열, 양 엘리자벳, 안진이 제올지아, 강민환 마리아, 최정길 요셉, 강 안나, 김창호, 지 요한, 강세원 바오로, 노시창 버나드, 조현욱 안젤라, 임지은 에밀리아나, 차 도미나, 박성기 유스티노, 강수환, 조재형, 주광국, 안종윤, 유시명, 정형순, 홍성원, 박우현, 박상웅 마르티노, 조영인, 박광원, 이순애 사비나, 이기연 카타리나, 이창재, 김용언, 조성수, 박동성 미카엘, 송상희, 최 수산나, 김경애 아네스, 박도원, 남광우, 서윤배, 한동석 요한, 안순상, 이정완, 박장호, 이수연 가브리엘, 이신규, 강승평 요한, 양방우 요한, 김세진 안드레아, 금화렐 바오로, 이수호 미카엘, 장혜선 리카르다, 이인표 요한, 양 헬레나, 김 안드레아 대니엘, 강승희 요한, 홍익훈 요셉, 안나희, 유기명 루시아, 김옥희 요안나, 오승영 스테파노, 김광자 세실리아, Soon Kim, 정호정 소피아, 민금선 마리아, 김기득 안토니오, 윤 비비안나, 권미혜 에스터, 이소남 소피아, 김경숙 안나, 이다연 아네스, 한기근 안토니오, 안병화 요한, 한기남 데레사, 윤상 리노, 조순우 로사, 이정화 실비아, 한경옥 로즈마리, 김용희 라파엘, 김안나, 민일성 베드로, 전원길 베드로, 심경희 모니카, 서정모 마태오, 정윤호 데레사, 강옥규 바오로, 김상애 수산나, 김형희 아네스, 이병국 베드로, 이수정 가브리엘라, 김형자 아그네스, 이정열 마리아, 권영식 요한, 곽노덕 도미니코, 김형기 빈센트, 이인표 가브리엘, 임정숙 모니카, 조혜원 글로리아, 이미혜 마가렛, 변 시몬, 황국향 세라피나, 박호철 바오로, 이영자 마리아, 임진숙 아나다시아, 이향조 레지나, 박해진 소화데레사, 조경구 루카, 이봉기 비오, 김형석 바오로, 황원균 알렉산더, 김문겸 미카엘, 김명희 레지나, 구아를 데레사, 임영재 안드레아, 정승우 바오로, 김복희 모니카, 김용구 가브리엘, 권 이나시오, 윤옥영 그라시아, 홍현중 야고보, 김국 스테파노, 노응홍 아브라함, 오복미 도미질라, 최상규 요셉, 배석범 알베르토, 배대륜 요한, 박병학, 김남식 데이빗, 이광재 다윗, 이승호, 양명암 안드레아, 홍연지, 이헬렌, 이원석 요한 Total : \$4,760.00

봉헌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igious Studies

The Epiphany of the Lord

The feast of manifestation, or Epiphany, is traditionally celebrated the 12th day after Christmas, January 6th. In the dioceses of the United States this feast has been moved to the Sunday between January 2 and January 8. Here is a wonderful explanation of this beautiful feast.

The Epiphany is the feast of the manifestation of the majesty and divinity of the newborn Savior. As early as the third century, the Eastern Church, in celebrating the birth of the Redeemer, viewed it primarily as the manifestation of God to man. Hence the name Epiphany, which means manifestation, was given to the feast. Toward the end of the fourth century, as the feast gradually came to be known and celebrated in the West, the adoration of the Christ-Child by the Magi or Wise Men was stressed. Soon these sages were looked upon as the Three Kings.

In the West Christ's birthday had already been celebrated for some time on December 25. But with this feast was associated all the poverty and helplessness of the cave of Bethlehem; Mary and Joseph watched beside the crib in poverty, and the shepherds that came to offer their humble worship were equally poor. This aspect was lost sight of in the Feast of the Epiphany. It is true that the Magi found a poor, weak child, attended by poor parents. But through their faith they recognized and acknowledged the helpless Infant as the Redeemer and King of the world, and as such they adored Him. In the Feast of Christmas Christ is shown as man to a few of His chosen souls; in the Feast of the Epiphany, on the other hand, He appears to the whole world as God.

In order to strengthen and reinforce this divine manifestation to the Magi, the Church commemorates on this feast two other incidents, both of which strongly testify to the divinity of Christ: His baptism in the Jordan and the first miracle at the marriage feast in Cana. In this way, the Redeemer, whose coming was known imperfectly at Christmas, is made known to the whole world.

While the Mass of the feast concentrates entirely on the coming of the Magi and their adoration of their new-found King, the Breviary abounds in references to the two other "manifestations." The antiphon for the Magnificat of second Vespers summarizes the threefold significance of the day in words that are unmistakable: "Three miracles glorify this sacred day: today the star led the Magi to the crib; today at the wedding feast water was changed into wine; today Christ willed that John baptize Him in the Jordan so that He might become our Redeemer, Alleluia." Thus we have three supernatural interventions: the star that guided the Magi from the East, the wine miraculously brought into being from water, and the voice of the Father ringing out from the heavens,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Matt. 3:17).

Various interpretations have been given for the gifts which the Magi offered the Christ-Child. In the responses at Matins the Church says that the gold represents kingly power, incense the great High Priest, and myrrh the burial of the Lord; and so she depicts the Wise Men offering their gifts to Christ is His threefold character of King, High Priest, and Man. In his homily for the third day within the octave, St. Gregory looks at the gifts from the viewpoint of the givers, and so sees in the gold, wisdom; in the incense, the power of prayer; and in the myrrh, the mortification of the

flesh. Both interpretations are worthy of consideration, and some little reflection on them should prompt us to bring all the powers of our intellect to our King, the incense of our prayers to our great High Priest, and the myrrh of our sufferings and labors to our Man-God.

The Epiphany is the high point of Christmas and the fulfillment of Advent. It is the ancient Feast of Christ the King. Its dignity in the liturgy is superior to that of Christmas. If the Feast of Epiphany is to be fully understood as the Church sees it, it will have to be viewed from two aspects: that of God who manifested Himself to man, and that of man, typified in the Magi, who responded with wholehearted faith and love. It is, therefore, a day of faith and grace on which no other prayer ought to take precedence over that petition of the Our Father, "Thy Kingdom Come!"

▪ <https://www.catholicculture.org/culture/liturgical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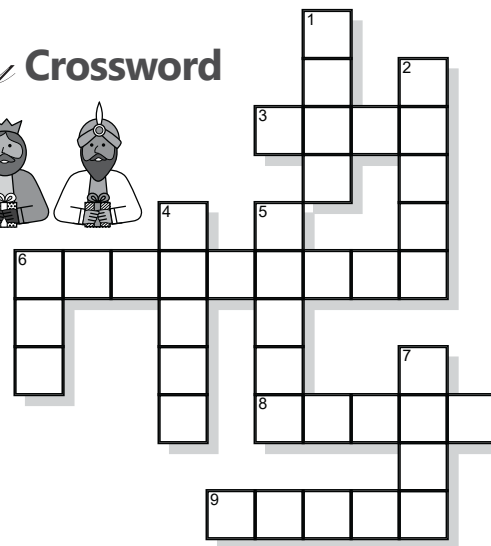
바오로팔 콘텐츠

Epiphany Crossword



WORD LIST

Baby Jesus,
Bow, Dream,
East, Egypt,
Gifts, Herod,
Magi, Myrrh,
Star



Across

- ③ The Wise Men who visited Jesus and Mary and Joseph shortly after Jesus was born
- ⑥ The three wise men paid homage to _____
- ⑧ The wise men were warned in a _____ not to return to Herod
- ⑨ Where Mary and Joseph fled after the birth of Christ

Down

- ① It led the wise men to Jesus
- ② The wise men brought these to Jesus
- ④ The Tree kings gave Jesus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_____
- ⑤ The jealous king who reigned at the time of Jesus' birth
- ⑥ To kneel or bend the head or body forward as a show of respect
- ⑦ The Magi came from the _____

ANNOUNCEMENT

No Sunday School

• When : Jan.14(Sun), A day before Martin Luther King Jr. Day

2018년 성 정 바오로 성당 신임 회장단



총회장 허전 베네딕도	운영담당 부회장	박원균 암브로시오
	전례담당 부회장	김용희 라파엘
	구역담당 부회장	서경원 마르티노
	단체담당 부회장	김인태 골롬바노
	여성담당 부회장	서효심 마리아
	청소년담당 부회장	김돈현 미카엘
	총무부장	허진 세바스찬

송년 잔치



2017년을 보내며 본당에서는 지난 12월 29일(금) 7시 30분 미사 후 친교실에서 송년 잔치를 열었다. 신자들은 재미있는 퀴즈 정답을 맞추며 푸짐한 상품도 받고, 테이블마다 넉넉하게 준비된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서경원 마르티노 형제의 재치있는 사회와 꾸르실료의 라이트 쇼 그리고 레지오 팀의 춤 공연 등으로 흥겹고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김 그라시아 자매는 “미사 후 별 기대없이 참석했는데 마치 극장식 디너쇼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었다” 며 “내년에는 가족들 모두 참석해 앞자리에서 보고 싶다” 고 말했다.

요한회 소식



50대 신자들의 모임인 요한회(회장 박동성 미카엘)가 지난 29일 성당 송년회를 맞아 포장마차를 열었다. 요한회는 이날 송년파티를 겸해 열린 포장마차 운영을 통해 성당 내 든든한 허리인 요한회의 봉사 정신을 더욱 빛냈다. 메뉴는 드럼통 구이와 두부김치로 송년회에 참석한 신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서 고기를 구워 봉사하는 요한회 회원들을 찾아가 격려했다.

빛을 찾는 사람들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11)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최초의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의 전달자가 됩니다.

(김옥순 수녀)

1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1월 7일(일) 오전 11:30(B-1,2)

2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1월 7일(일) 오후 1시(B-1)

3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 1월 7일(일) 오후 1시(B-3,4)

4 본당 달력 배부

• 2018년도 본당 달력을 친교실에서 각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해 드리고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 2018년 교무금 카드

• 2018년 교무금 카드는 세금공지 납부서와 함께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발송되니 당분간 카드없이 납부해 주십시오.

6 동전 모으기 저금통 봉헌

• 대림시기 동안 나누어 드린 저금통을 이번 주일 (주님 공헌 대축일)부터 봉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집니다.

7 저금통 동전 분류 작업

• 동전 저금통 분류 작업 및 정리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월 7일(일), 14일(일), 10시 미사 후(A-1,2)
• 문의 : 김진호 다니엘 (703)300-5420

8 1월 공동체 기도회

• 일시 : 1월 13일(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해당 공동체에 참석하여 신앙과 사랑을 나눕니다.

9 단체장 회의

• 일시 : 1월 14일(일) 오전 11:30(B-3,4)

10 꼬미시옹 월례회

• 일시 : 1월 14일(일) 오후 1시(B-3,4)

11 CYO 스키 트립

• 일시 : 1월 26일(금) - 1월 28일(일)
• 장소 : Seven Springs Ski Resort, PA
• 접수 : 선착순 30명 (하상관 로비, 8시 미사 후, 10시 미사 전/후)
• 등록비 : \$200(본인 장비 지참시), \$260(장비 Rental 포함)
• 문의 : 이희준 아오스딩 교장 (703)627-0799

12 2018년도 매일미사, 병초, 봉헌초 주문

• 성물부에서 2018년 매일미사, 병초, 봉헌초(미사에 사용) 주문받습니다.

13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년~2021년)

•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성당 창설 30주년(2017)을 맞아 다짐했던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성경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4 성경통독 참석자 모집

• 본당 설정 25주년(2021)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성경(구약과 신약)을 통독하는 모임에 참석자를 모집합니다.
• 문의 : 하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 "2018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15 2018년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운동)

• 일정 : 2018년 1월 19일(금)
• 참석 인원 : 선착순 55명
• 참가 신청 : 1월 14일까지
• 문의 : (703)978-4005

16 한국의 어머니 Pr 1,500차 레지오 회합

• 일시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8시
• 한국의 어머니 Pr (현재, 구) 단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박소피아 (571)225-8676

17 남자 화장실 공사 안내

• 남자 화장실 공사로 인해 2018년 1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기간 동안 하상관 1층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월 7일(일)	주님 공헌 대축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동전 분류작업(오전 11:30, A-1,2),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1)
1월 8일(월)	주님 세례 축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9일(화)	연중 제1주간	성령기도회(오후 8시),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10일(수)	연중 제1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11일(목)	연중 제1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2일(금)	연중 제1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13일(토)	연중 제1주간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1월 14일(일)	연중 제2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옹(오후 1시, B-3,4), 주일학교 교사회(오후 1시)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민수 6,24-26)

교황님의 1월 기도 지향

선교: 아시아의 소수 종교

아시아 나라들에서 그리스도인과 다른 소수 종교 신자들이 종교 생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월 11일(목) 오후 5:00-6:00

1월 12일(금) 오후 8:00-9:00

1월 14일(일) 오전 6:00-7:00

• **성 정바로 성당 2017:** 지난 해 본당의 주요 이벤트를 영상으로 되돌아 본다.
• **황창연 신부와 함께 하는 성경여행:** 정경예식 할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12월 31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주일헌금 \$ 8,184.23
교무금 \$ 21,2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10,475.20
특별헌금 \$ 950.00
대축일헌금 \$ 5,277.00
합계 \$ 46,136.43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규(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학(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경(시몬), 박재중(요셉), 송영호(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경(모니카), 이수선,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최재근(시몬), 권 미카엘, 김 루시아, 백명수(마리아), 고필선, 켈라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치노), 이슬(루시아), 이재음(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백희(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이크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립(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 디 케 어 홍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뉴잉턴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양 요 한 동양화 표구 전문 703-628-0114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Cha Group 앤디 차 (CPA) 703-678-8848	Kim Chiropractic & Reha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703-815-2300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